

위아래로 접었다 폈다... '갤 Z플립' 11일 베일 벗는다

삼성전자 美서 언팩

14일 국내외 주요시장 출시
국내에는 사전예약 없이 판매
가격은 160만원 대 예상
'갤 S20'는 내달 6일 선보여

삼성전자가 두번째 폴더블(접을 수 있는) 스마트폰을 14일 국내에 출시한다.

6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오는 11일(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언팩을 열고 폴더블폰 신제품 '갤럭시 Z플립'과 플래그십스마트폰 '갤럭시 S20'을 공개한다. 이후 14일 국내를 포함해 글로벌 주요 시장에 폴더블 폰 갤럭시 Z플립을 출시할 계획이다. 공개 후 출시일까지 시기가 가까운 만큼 별도의



삼성 갤럭시 언팩 2020 초대장 이미지. 삼성전자는 오는 11일(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언팩 행사를 연다. /삼성전자

사전예약 판매는 진행하지 않는다.

당초 갤럭시S20을 먼저 출시할 것이라는 예상이 있었지만 삼성전자는 갤럭시 Z플립을 먼저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언팩 행사 후 바로 출시해 소비자의 관심을 극대화하고 폴더블 폰 시장에서 삼성 제품에 대한 주목도를 높이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또한 모토로라가 갤럭시Z플립과 디자인이 유사한 폴더블 폰 '레이저'를 6일(현지시간) 북미시장에 출시하는 것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접는 형태가 같고, 가격대도 비슷한 만큼 글로벌 시장에선 삼성전자와 모

로라 간 클램셀 폴더블 폰 경쟁구도가 형성될 것으로 보고 있다. 국내에선 모토로라 서비스센터 부재와 유심(USIM) 미지원으로 인해 출시가 어려워지면서 삼성전자의 갤럭시Z플립이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할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레이저는 출시 전 기대감과 반대로 품질 문제가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손톱으로 화면을 뜯을 수 있어 화면이 쉽게 깨고, 액정이 망가진다는 지적이다.

갤럭시Z플립은 화면을 수직으로 접는 클램셀(조개껍질) 형태의 폴더블폰이다. 가격은 160만원 대로 예상된다. 작년 9월 출시된 '갤럭시 폴드' 대비 가격이 70만~80만원 가량 저렴하고 접는 방식에 차이가 있다. 갤럭시폴드는 수평으로 접는 형태였다. 또한 가격이 100만원대 중후반으로 낮아짐에 따라 폴더블폰의 대중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갤럭시Z플립은 접으면 정사각형 형태로 갤럭시 폴드보다 휴대성도 높다. 갤럭시 폴드는 접으면 길고 두꺼워 주머니에 넣기 무겁다는 지적이 있었다. 삼성전자는 6일 갤럭시폴드의 기존 출고가인 기존 239만8000원에서 199만8700만원으로 40만원가량 낮췄다.

한편, 갤럭시S20은 갤럭시Z플립 출시일인 14일부터 사전예약판매를 진행한 후 다음달 6일 공식 출시한다. 갤럭시S20은 ▲갤럭시S20 ▲갤럭시S20+(플러스) ▲갤럭시S20 울트라로 나뉜다.

가격은 갤럭시S20이 120만원, 갤럭시S20이 135만원, 갤럭시S20 울트라가 160만원대다. 가장 가격이 높은 울트라 모델은 1억800만 화소의 메인 카메라를 장착해 카메라 성능을 대폭 높였다.

/구서윤 기자 yuni2514@metroseoul.co.kr

코로나 직격탄 부품 협력사에 현대차그룹, 1兆 풀어 긴급지원

대금 조기지급 등 경영안정화 도모

현대자동차그룹이 중국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부품 협력사들을 위해 대규모 긴급 자금 지원에 나선다.

또 부품 협력사의 중국 공장 방역 강화를 통해 현지 임직원 안전을 확보하고, 공장 조기 생산 재개 방안을 모색한다. 이는 국내 중소 부품 협력사들의 경영 어려움을 해소하고 국내 자동차 산업 생태계 전반의 경영 안정화를 위해서는 원활한 국내 부품 공급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6일 현대차그룹에 따르면 중소 부품 협력사들을 위해 ▲3080억원 규모 경영 자금 무이자 지원 ▲납품대금 5870억원 및 부품 양산 투자비 1050억원 조기 결제 등 1조원 규모의 자금을 집행한다. 현대차그룹은 중소 부품 협력사들이 적기 유동성 확보를 통해 글로벌 자동차 시장 침체, 중국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의 영향을 최소화하고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경영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자금 지원을 결정했다.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 현대위아, 현대트랜시스에 부품을 공급하는 350여 개 중소 협력사가 대상이다.

우선 현대차그룹은 중소 부품 협력사들의 자금 부담 완화를 위해 3080억원 규모의 경영 자금을 무이자로 지원한다. 이달 중순부터 선지급해 협력사들이 경영 자금으로 활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중소 부품 협력사들은 금융권의 까다로운 대출 심사와 높은 금리로 인해 필요한 때 소요 자금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을 겪어왔지만 이번 현대차그룹의 긴급 지원으로 보다 긴급하게 자금을 운용할 수 있게 됐다.

또 6920억원 규모의 중소 협력사 납품대금과 부품 양산 투자비도 조기에 지급한다. 2월 중순 결제되는 금액을 이번 주 지급하기로 했으며, 3월 중순 결제 예정인 납품대금은 2월말 지급한다. 예



서울 서초구 양재동 현대자동차그룹 본사 사옥

정일보다 최대 15일 이상 이른 시기에 대금을 지급해 협력사들의 자금 운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부품 양산 투자비도 기존 일정보다 조기에 지급하기로 했다.

현대차그룹은 지원을 받은 1차 협력사들이 2·3차 협력사에도 납품대금을 앞당겨 지급할 수 있도록 유도해 대금 조기 지급의 효과가 확산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현대차그룹은 동반자인 부품 협력사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 성장을 위해 적기에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현대차그룹은 지난해 총 1조6728억원 규모의 상생협력 프로그램을 마련해 중소 부품 협력사의 경영안정화를 적극적으로 돕고 있다. 협력사 신기술 투자 지원 위한 미래 성장 펀드 운용, 부품 투자비 조기 지급, 중소 부품업체 경영 안정화 긴급 운영 프로그램이 주 내용이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급속한 확산으로 인한 불가항력적 상황이지만, 정부와 기업이 함께 어려움 타개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이번 긴급 자금 지원이 중소 부품 협력사들의 경영 안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양성윤 기자 ysw@

LG '디지털 콕핏', 캐딜락과 함께 달린다

P 올레드 '에스컬레이드'에 탑재
38인치 초고해상도 디스플레이

LG전자 플라스틱 올레드(P올레드)가 럭셔리카에 탑재된다.

LG전자는 2021년형 캐딜락 '에스컬레이드'에 디지털 콕핏 시스템을 공급한다고 6일 밝혔다. 신형 에스컬레이드는 지난 4일(현지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공개된 모델이다.

이 제품은 LG전자가 독자 개발한 통합 인포테인먼트 시스템과 함께, 38인치 초고해상도 P올레드 디스플레이로 구성됐다. P올레드가 실제 차량에 탑재되는 것은 에스컬레이드가 처음이다.

P올레드는 계기반과 인포테인먼트 화면 2개를 합쳐, 3개 디스플레이를 결합한 형태로 제작됐다. 높은 해상도로 시인성을 크게 높였다. 올레드 특성상 시야각도 넓으며, 백라이트가 필요없어 차량 인테리어와 완벽하게 어우러진다.



캐딜락 에스컬레이드에 탑재된 플라스틱 올레드.

/LG전자

아울러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은 오디오와 비디오, 내비게이션과 뒷좌석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등을 포함했다. 뒷좌석에는 12.6인치 화면 2개가 각각 탑재돼 화면 공유와 기기간 연동, 오디오 시스템 조작 등이 가능하다.

통합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구현하는 자체 소프트웨어도 새로 개발했다. 자동차 기능 안전성 국제표준인 'ASIL'을 충족했다.

LG전자는 에스컬레이드뿐 아니라 GM에서 출시된 차량에도 뒷좌석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추가 공급기로 했다.

GM 글로벌 제품담당 팀 헤릭 부사장은 "업계 최초로 적용한 P-OLED 디지털 콕핏이 차량의 콘셉트 디자인을 양산차에 구현할 수 있도록 했다"며 "차량 인터리어의 차별화된 핵심 기능 가운데 하나"라고 말했다. /김재용 기자 juk@

LG전자, 'G7 씽큐'에 안드로이드10 지원

차주부터 진행, '퀵 헬프 앱'서 신청

LG전자가 LG G7 씽큐에 안드로이드 10을 업데이트한다고 6일 밝혔다.

LG전자는 다음주 G7 씽큐에 구글 최신 운영체제(OS)인 안드로이드 10 업데이트를 위한 'LG OS 프리뷰 프로그램'을 시작한다. G7 씽큐 대상 OS 프리뷰 프로그램은 지난해 1월 안드로이드 9.0 파이에 이어 올해 안드로이드 10이 두 번째다.

LG전자가 안드로이드 10으로 업데이트 한 모델은 현재까지 G8 씽큐, V50 씽큐 등이며 G7 씽큐가 세 번째다.

안드로이드 10은 화면을 옆으로 밀거나 위로 올리는 동작만으로 홈 이동, 앱 전환 등이 가능한 '풀 제스처 네비게이션'을 새롭게 적용했다. 또 사용자가 개

별 앱 사용권한을 다시 설정할 수 있게 보안도 강화했다.

LG전자는 OS 프리뷰 프로그램과 함께 사용자환경(UI) 업데이트도 함께 진행한다. 새 UI는 메뉴 탭, 팝업 등을 화면 아래쪽에 배치한 '하단 조작구조', 단순하고 직관적인 '카드타입 메뉴', 사용자 조작에 따라 화면을 맞춤형으로 표시하는 '반응형 메뉴', 각종 앱을 작은 화면으로 보여주는 '팝업 윈도우' 등이 특징이다.

G7 씽큐에 LG 스마트폰 최신 UI와 안드로이드 10을 체험하고자 하는 사용자들은 LG 스마트폰이 기본 탑재하고 있는 퀵 헬프 앱에서 신청하면 된다. 업데이트는 무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OTA) 방식으로 이뤄진다.

/구서윤 기자

NHN-EBS AI 활용 미래교육 '맞손'

NHN은 한국교육방송공사(EBS)와 'AI를 통한 미래교육 발전' 업무 협약(MOU)을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

5일 NHN 판교 사옥에서 진행된 업무협약은 AI 및 에듀테크를 기반으로 한 미래교육 발전과 인재 양성을 위해 양사간의 긴밀한 상호협력체계를 구축하는데 목적이 있다.

주요 협력 내용으로는 ▲AI를 활용한 교육용 콘텐츠 제작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 고도화 협력체계 구축 ▲에듀테크 발전 협력체계 구축 ▲인재양성 프로젝트 협력 ▲교육 콘텐츠 공동 개발과 글로벌 비즈니스 모델 구축 등이 있다.

NHN은 이번 업무협약과 함께 교육부가 추진하고 EBS가 주관하는 'AI기반 영어말하기 시스템 구축' 사업의 수행 개발사업자로 선정됐다. /김나인 기자 slkni@